

+ POSRI 보고서

경제의 문 여는 북한, 미래의 돌파구로 활용하자

박준홍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jfactor@posri.re.kr)

[목 차]

1. 완만한 성장 지속하는 북한
2. 북한의 성장 잠재력
3. 경제개발구 현황 및 전망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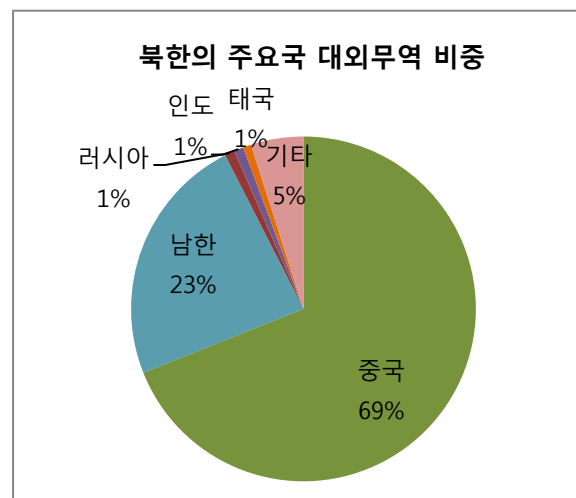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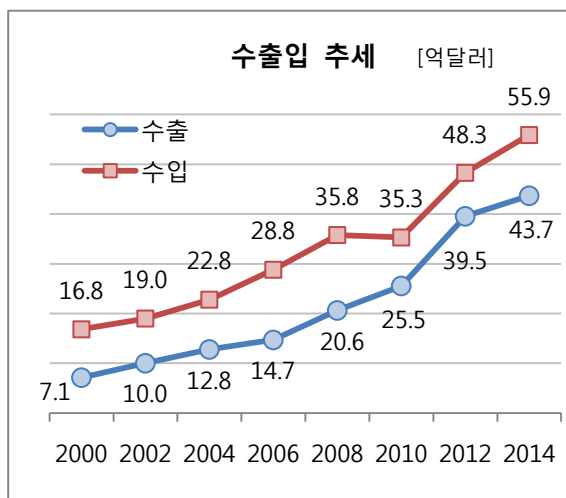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북한은 정치, 군사적 리스크에도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도 생산(소비)가능 인구 중심의 증가 추세 지속 중
 - 북한의 대외 교역은 '00년 24억달러에서 '14년 100억달러로 4배 성장
 - GDP는 '14년 33조원으로 전체 규모는 작은 수준이나 경제성장률은 '00년부터 '14년까지 두 해를 제외하고 플러스 성장 지속
- 자본과 기술은 부족하나 풍부한 자원과 생산가능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경제 개혁·개방 시 성장 잠재력이 큼
 - 북한은 약 7,000조원 가치의 광물을 가진 자원부국으로 마그네사이트, 아연, 희토류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정
 - 인구 수는 '00년 2천2백8십만명에서 '50년 2천6백9십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00년 59%에서 '20년 62%로 증가 전망
- 경제개발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경제개발구법을 시행, 총 2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해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로 경제발전 도모
 - 중앙급 개발구는 개성공업지구, 나선 경제무역지대, 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등 총 5개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이 대부분임
 - 지방급 개발구는 모두 19개로 테마에 따라 경제, 관광, 수출가공, 공업, 농업 개발구로 구분되며 테마별로 다양화, 집중화, 전문화의 특성을 두어 차별화 함
 - 지방급 개발구는 대부분 1억달러 정도의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접경지대와 연안지대에 주로 위치, 효율적, 현실적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함
 -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성공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금융기구,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의 투자를 통한 전력,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 될 전망
 - 북한은 원활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장성 특혜법을 추가 보완함
- 향후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인프라, 경제개발구 개발 등의 다양한 경험 이루어 질 것인바, 한국도 선점할 수 있는 사전 준비 필요
 - 한국은 북한을 '제2의 내수시장'인 동시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도를 위한 시작점으로 보고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함
 - 자원부족, 인구절벽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북한을 자원과 생산인구를 확보하는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완만한 성장 지속하는 북한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선군정치에서 선경정치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대외교역량이 크게 늘고 경제성장에 공을 들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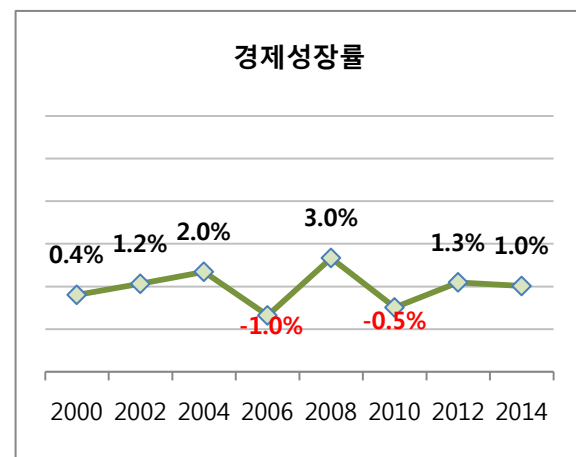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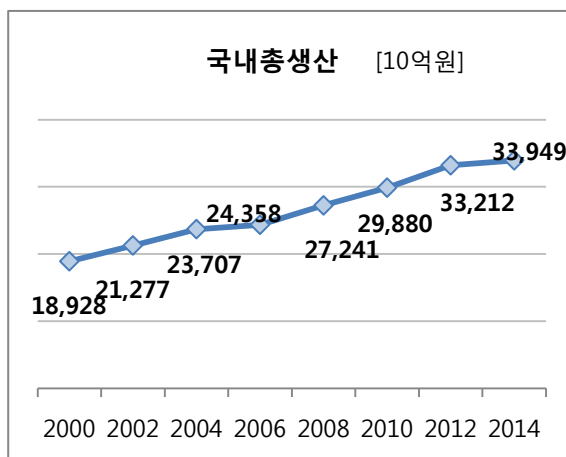
-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12%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00년 24억달러에서 '14년 100억달러로 약 4배 성장
 - 주요국가별 대외무역 비중은 2010년 한국의 5.24조치 이후 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23%로 두 국가가 북한 전체 대외무역량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 한국 통계청, 2015

□ 북한 경제성장률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두 해(2006년 -1.0%, 2010년 -0.5%)를 제외하고 플러스 성장을 지속 해옴

- 국내 총생산(명목 GDP)은 2000년 18조원에서 2014년 33조원으로 1.8배 성장했으나 규모상으로는 저조한 수준임



출처: 한국 통계청, 2015

2. 북한의 성장 잠재력

□ 북한은 7,000조원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미래가치 시장

○ 마그네사이트, 아연, 희토류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정

- 전력난 등 열악한 인프라로 광물자원 생산이 저조하며, 대부분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해 채굴되고 있음
- 한국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사업 외의 모든 남북경협사업이 중단되어 중국의 자원개발 독과점 현상 우려

광종	품위	매장량 [천톤]		남한 수입 의존율
		북한	남한	
금	금속기준	2	0.05	96.5%
동	금속기준	2,900	51	100 %
아연	금속기준	21,100	558	99.6%
철	Fe 50%	5,000,000	40,000	99.8%
희토류	REO기준	20,000	544	100%
텅스텐	WO3 65%	246	129	100%
몰리브덴	MoS2 90%	54	24	98.8%
인상흑연	F,C 100%	2,000	121.6	99.8%
마그네사이트	MgO 45%	60	-	100%
무연탄	각급	4,500,000	1,340,000	71.9%

출처. 광물자원공사_2012

□ 아래로부터의 시장화¹ 및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노동생산력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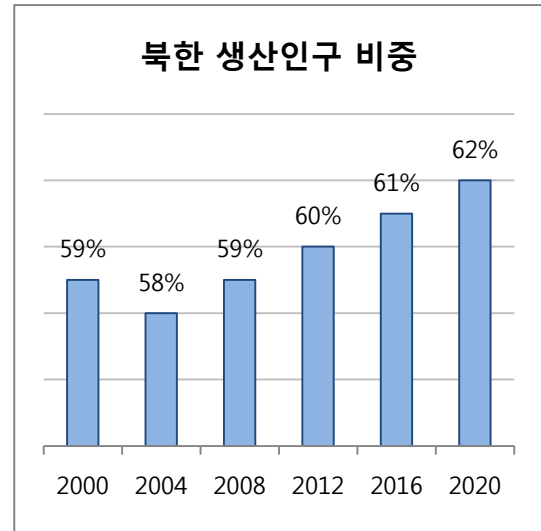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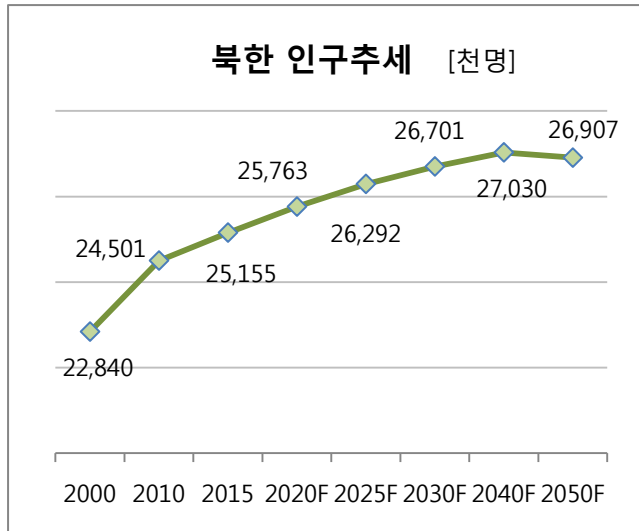
○ 90년대 배급제 붕괴로 생계유지를 위해 암거래 시장 형태로 생겨난 장마당은 식품 교환, 매매 등의 소규모 거래로 시작, 점차 확대

- 김정은 정권은 장마당이 북한경제, 특히 주민생계에 필수요소가 된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인정, 시장경제 형태의 장마당경제와 공생관계를 유지

○ 북한 인구는 생산, 소비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 중심으로 증가 추세

- 2000년 2,280만명에서 2050년 2,69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남북 경제개방 시 인구 7천5백만명의 내수시장 형성
-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0년 59%에서 2020년 62%로 노동 생산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¹ 시장화: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으로 국가의 배급제가 붕괴되자 식량, 생필품, 밀수품 등 생계를 위한 장마당이라는 암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 북한 당국의 단속과 묵인의 반복 속에 지속적으로 확대된 시장은 신흥 부유층의 성장, 주민들의 시장경제 학습, 빈부격차, 중앙경제의 악화 등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를 침투시키고 있음



출처: UNCTAD, 2015

3. 경제개발구 현황 및 전망

□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통하여 대외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시행 2015년 현재 중앙급 특구 5개, 지방급 개발구 19개 등 총 2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
- 중앙 개발구는 개성 공업지구, 나선 경제무역지대, 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5곳

	나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위치	함경북도	평양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면적	약 470 km ²	132 km ²	66 km ²	약 100 km ²	황금평 16.0 km ² 위화도 12.2 km ²
유형	경제무역지대	특별행정구	공업단지	관광특구	경제무역지대
관련법	경제무역지대법	특별 행정구 기본법	공업 지구법	국제관광 특구법	경제지대법
주요 기능	첨단기술, 국제물류, 제조, 금융	첨단과학, 관광, 금융, 무역, 공업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	국제관광	정보, 관광, 현대농업, 경공업
토지 임차	50 년	50 년	50 년	50 년	50 년
비자	무비자	발급	무비자	무비자	무비자

출처.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_박용석_2014_CERIK 건설이슈포커스

□ 19개 개발구는 경제, 관광, 수출가공, 공업, 농업 등의 테마로 나누어지며 집중화, 다양화, 전문화를 통하여 각 개발구의 차별화를 톺

- 19개 개발구는 대부분 소규모의 크기로 접경지대, 연안지대에 위치하여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유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각 지역별로 주변 인프라 활용, 효율적 물류를 위한 접근성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구 선정
 - 경제개발구법에 토지 “50년 임대 보장”, “국제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소득세 및 토지사용료 면제” 등 특혜조치를 포함시켜 외국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정치·군사적 위험을 줄이고자 함



출처: 경기연구원

① 경제 개발구

- 기계, 제조, 무역 등 한 개 이상의 사업개발이 가능한 복합지구들로서 청진, 해산, 만포, 압록강 등 4개의 경제개발구가 포함

② 관광 개발구

- 온성섬, 청수, 신평 3개 관광개발구 지정, 기존 관광 인프라가 없는 지역으로 새로운 관광지로 구상

③ 수출가공 개발구

- 송림, 와우도, 진도 3개의 수출가공 개발구가 대동강 하류 주변에 모여 있고 조선소가 있어 수출에 적합한 입

④ 공업 개발구

- 위원, 홍남, 현동, 청남, 은정 5개 공업개발구 지정. 기계설비, 화학, 공업기술, 첨단과학 등을 집중 육성

⑤ 농업 개발구

- 북청, 어랑, 숙천은 곡창지대와 수산업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강령은 친환경 녹색사업 목적으로 총 4개 개발구 지정

□ 19개 경제개발구는 대부분 지역별 현실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현실성을 높임

- 경제개발구는 경제특구의 대규모 사업과 달리 각 사업당 1억~2억달러 정도의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북한은 기술력, 인프라, 투자재원 모두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본격적인 해외의 투자 및 지원이 없어 개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임

개발구	위치	면적 [km ²]	주요산업	주요 배후시장	투자액 (억달러)
압록강경제개발구	평안북도	1.5	현대농업, 관광, 무역	중국	2.4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3	현대농업, 관광, 무역	중국	1.2
위원공업개발구	자강도	3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 농산물가공	중국	1.5
운성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1.7	골프장, 경마장 등	중국	0.9
혜산경제개발구	량강도	2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중국	1.0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송림수출가공구	황해북도	2	수출가공, 창고, 화물운송, 물류	한국	0.8
와우도수출가공구	남포시	1.5	수출가공, 조립, 보세무역, 가공	-	1.0
청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	-	-	
숙천농업개발구	평안남도	-	-	-	
진도수출가공구	남포시	-	-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황해남도	-	농수산 청정사업, 녹색식품, 에너지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평양시	-	-	-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8.1	체육, 문화, 오락 등	국제	1.4

현동공업개발구	강원도	2	보세가공, IT 정보, 경공업, 광물자원	한국	1.0
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2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자재, 기계설비	한국	1.0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남도	3	과수업, 축산업, 가공업		1.0
청진경제개발구	함경북도	5.4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자재, 전기전자, 수출가공		2.0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4	농축산, 농업과학연구단지		0.7

출처: 좌승희, 조봉현, 이태규 “북한 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_KDI, 201501

□ 경제개발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기반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 부문 육성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전망

- 인프라 개발, 산업부문 육성을 위해 약 1,74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정책금융, 다자개발은행(MDB),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의 방법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인프라 개발	[억달러]	산업육성	[억달러]
철도	773	농수산	270
도로	374	광업	20
전력	104	전기전자	20
통신	96	경공업	8
공항	30	산업단지조성	30
항만	15	-	-
합계	1,392	합계	348

출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금융위원회 컨퍼런스, 2014.11.19

4. 시사점

□ 북한은 향후 경제개발구법 등을 통하여 빠르게 경제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임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인프라, 산업육성 등 다양한 투자 및 경험의 이루어 질 것인 바, 한국도 선점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할 필요

- 경제개발구법 등 투자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되었지만 북한 특유의 돌발 리스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단독 투자와 진출은 지양하고 다자간 진출로 리스크 최소화 모색
 - 남북러 합작 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² 같이 다자간 참여를 통하여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최소화 시키는 리스크 헷지 방안 필요

□ 자원부족, 인구절벽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북한을 자원과 생산인구를 확보하는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남북한 경제 통합 시 한국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이 합쳐지는 강건한 내수시장으로서의 인식 필요
 - 한국의 인구 고령화, 성장정체 현상에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으로 남북 경제 통합 시, 인구 7,500만명의 탄탄한 내수시장 확보 가능
- 동, 아연, 철, 니켈 등 국가 10대 전략 자원의 99%를 수입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자원 활용을 통한 자원 자급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통일 시 자국의 산업을 육성·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철강, 인프라 등 국가기반 산업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참여 중요

- 제조업의 기반산업인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김책제철소, 무산광산 등 북한의 주요 사업소들에 대한 현황분석, 발전방안 등 구체적인 준비 필요
- 이를 위해, 남북한(or 6자회담 당사국)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기업차원의 교류 및 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조 필요
-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교육, 농업기술, 조림사업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로 문화적 동질감 회복 및 공감대 형성

² 총사업비 3억 4000만 달러규모의 나진-하산 간 철도(54km), 나진항 부두와 나진구(21ha)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를 '08년 10월 설립함. (러시아 70%, 북한 30%). '13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 참여에 합의 포스코 컨소시엄이 러시아 지분의 49% 참여하는 양해각서 체결

[참고자료]

[보고서]

좌승희,조봉현,이태규 "북한 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 대동강 기적의 점화"_KDI 2015

권기철, "남북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연구"_LHI Journal 2015

박용석,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_CERIK 건설이슈포커스 2014

Andray Abrahamian, "The ABCs of North Korea's SEZs" _US Korea Institute 2014

[Database]

UNCTAD

통계청

광물자원공사